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 사례 분석

- 대전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민주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 사례 분석

- 대전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수 영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 민 주

정민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김 동 욱 (인)

부위원장 _____ 김 병 조 (인)

위 원 _____ 이 수 영 (인)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약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이 이뤄져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온전하게 학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우수 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천 학교,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교장(감), 담임교사,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고 학업에 복귀한 학생 등이었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으며,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론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이유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동일한 운영지침을 가지고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제도 운영의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맥락적인 차이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근거이론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근거이론 중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이라는 중심 현상을 두고,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속성을 분석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과적 조건 영역 중 숙려기간에서는 “학생 맞춤”이나 “학생 의향”과 같은 공통의 범주를 찾을 수 있었고, 예산에서는 “유연한 집행”이라는 공통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출결 및 성적처리에서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먼저 범주화가

됐으나 이 부분에서도 “학생 맞춤”의 범주가 나타났다. 참여학생의 경우 “관찰”과 “전문적 검사”라는 범주를 구성하였고, 운영기관 항목의 경우 범주화 했을 때 공통적으로 도출된 단어는 “선호반영”이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해볼 때 인과적 조건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매뉴얼이라는 동일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속성 영역에서는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을 신뢰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함께 담임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열정으로 학생을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할 때 성공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수의 면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적은 표본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낮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학교와 같이 정량적 기준으로 우수한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 공모전 입상이나 시교육청의 추천 등이 정성적인 요인에 근거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한 부분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학교 구성원의 다각적인 노력, 교사의 열정 등으로 나타난 바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학업중단 숙려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전문상담교사, 관심

학 번 : 2015-2433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학업중단 숙려제	4
1. 학업중단의 개념	4
2. 학업중단의 실태	5
3. 학업중단 숙려제 개관	7
제 2 절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1. 선행연구 분석	11
2. 소결	21
제 3 장 연구방법 : 근거이론적 접근	23
제 1 절 질적연구 방법의 필요성	23
제 2 절 근거이론(Ground theory)과 분석과정	24
1. 근거이론의 개념	24
2. 근거이론의 분석틀(패러다임 모형)	25
제 3 절 연구문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	27
1. 연구문제의 설정	27
2. 연구 방법	29
3. 질문지 구성	31

제 4 장 분석 결과	33
제 1 절 인과적 조건 분석	33
1. 숙려기간	33
2. 예산	36
3. 출결 및 성적 처리	38
4.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	40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45
6.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업복귀	50
제 2 절 맥락적 속성 분석	52
1. 관리자의 지지와 관심	52
2. 교사의 자질	55
3. 지역적 특색 및 문화	58
제 3 절 결과 분석	60
제 5 장 결론	64
제 1 절 결론	64
제 2 절 정책 제언	65
제 3 절 연구의 한계	67
참고문헌	69

표 목 차

[표 1] 초·중등교육법	2
[표 2]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및 학업중단을	6
[표 3] 전체 학급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 및 학업 지속률	9
[표 4]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 기준	10
[표 5] 학업중단숙려제에 이르게 된 학교생활요인	15
[표 6] 학업중단숙려제 제도와 행위자의 주요 맥락과 상호작용 경향성	17
[표 7] 자퇴·유예·면제 신청자 중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및 지속자 수	19
[표 8] 위기징후 사전포착 전체 학급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현황	19
[표 9] 학업중단 숙려제 선행연구 요약	22
[표 10] 연구 참여자 목록	29
[표 11] 질문지 구성	31
[표 12] 숙려기간 규정	33
[표 13] 운영 예산 규정	36
[표 14] 출결 및 성적 처리 규정	38
[표 15]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규정	40
[표 16]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	44
[표 17]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기준	45
[표 18] 대전 E중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프로그램	49
[표 19]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55
[표 20]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기준	58
[표 21] 결과 분석	60

그림 목차

[그림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8
[그림 2] 패러다임 모형	26
[그림 3] 재구성한 패러다임 모형	2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매년 약 5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만 7천여명이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를 이탈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특히, 2019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52,261명으로 2015년 이래로 학업중단 학생 수와 학업중단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 결과 2019학년도에서 전체 학생 중 약 1%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하지만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중단은 개인·가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업중단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교육소외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윤철경 외, 2019a)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제도권 밖에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이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학교를 떠난 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혹은 돌아온 뒤에도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오민숙·이은하, 2016). 또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동기나 기초학습 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보상 기대 역시 낮은 편이다. 이렇듯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직업을 선택할 때 제약을 받고, 비행이나 범죄에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학업중단은 자녀와 부모사이에서 갈등요소가 돼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행과 일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학업중단은 위기학생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확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 증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학업

중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윤철경 외, 2019a)

이에 정부는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여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1)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 시범운영 이후 2013년 10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시행령 수준이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제28조로 상향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다.

[표 1]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상담, 진로체험,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숙려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전 2010학년도 76,590명 수준이던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2014학년도 51,906명, 2015학년도 47,07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제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1) We(우리들)+Education(교육)+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나와 너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출처 : <https://www.wee.go.kr>)

학업중단 숙려제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감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교육감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도별 여건에 따른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 내에서도 학교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의 복귀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숙려제 운영의 내실도 편차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학업중단 예방 정책인 학업중단 숙려제의 우수한 사례들을 인터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공통의 특성 및 성공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후 공통의 성공요인을 관내 다른 학교로 확산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 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 입상했거나, 대전교육청 내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교감, 숙려제를 직접 운영했던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과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나 Wee센터 담당자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학업중단 숙려제

1. 학업중단의 개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학업중단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학업중단은 ‘부적응자’, ‘중도탈락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통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업중단의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중도탈락이나 부적응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도탈락이란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학업중단이란 개념은 1990년대 말부터 사용됐으며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학한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이탈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으로까지 확장하여 학업중단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의 아동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소년,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비진학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한편에서는 학업중단을 “정규 학교 소속자 중 질병, 가계곤란, 품행, 부적응, 비행,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중단 사유를 중심으로 학업중단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금명자, 2008)

법률적 의미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도 학술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나누고 있다. 즉,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경우 장기결석이나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경우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진학한 이후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여 자퇴를 결정한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²⁾

2. 학업중단의 실태

교육 통계적으로 학업중단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으로 분류하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출국) 처리된 학생으로 구분한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980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0.4%~0.7% 수준의 낮은 학업중단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80년부터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0학년도 이후로 0.6%~0.9%의 학업중단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985학년도에 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9학년도에는 1.7%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교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는 1.4%, 특수목적고는 1.5%, 특성화고는 3.4%, 자율고는 1.1%로 나타나 특성화고의 학업중

2) 초·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비진학을 선택할 수 없어 고등학교에만 비진학하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학업중단자 수는 1985학년도 10만명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던 상황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학년도 이후 5만명 내외를 오가고 있다. 한편 2015학년도에 47,070명으로 가장 적은 학업중단 학생 수를 기록한 이래로 다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및 학업중단율

학 년 도	학업중단자 수(명)				학업중단율(%)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77,572	3,856	30,628	43,088	0.1	1.2	2.5
1985	94,887	1,636	29,410	63,841	0	1.1	3
1990	66,189	1,299	22,348	42,542	0	1	1.9
1995	79,529	1,219	24,567	53,743	0	1	2.5
2000	85,967	14,734	19,097	52,136	0.4	1	2.5
2005	57,148	18,403	15,669	23,076	0.5	0.8	1.3
2010	76,589	18,836	18,866	38,887	0.6	1	2
2011	74,365	19,163	17,811	37,391	0.6	0.9	1.9
2012	68,188	16,828	16,426	34,934	0.6	0.9	1.8
2013	60,568	15,908	14,278	30,382	0.6	0.8	1.6
2014	51,906	14,886	11,702	25,318	0.5	0.7	1.4
2015	47,070	14,555	9,961	22,554	0.5	0.6	1.3
2016	47,663	14,998	8,924	23,741	0.6	0.6	1.4
2017	50,057	16,422	9,129	24,506	0.6	0.7	1.5
2018	52,539	17,797	9,764	24,978	0.7	0.7	1.6
2019	52,261	18,366	10,001	23,894	0.7	0.8	1.7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3. 학업중단 숙려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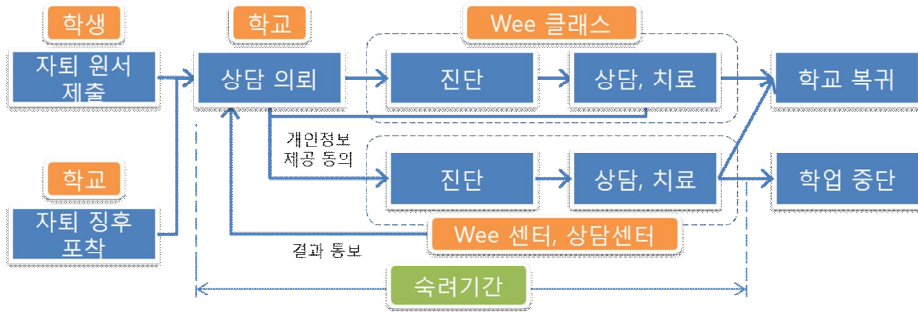
학업중단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 매년 6~7만명 가량의 학업중단 학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최초로 실시한 곳은 경기도 교육청이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5월 학교생활 부적응과 질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기도 내 고교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였다.(세계일보, 2011. 5. 10) 경기도의 2011년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결과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자퇴 의사를 철회(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할 정도로 경기도의 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듬해인 2012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

이 보도자료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는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의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가 학생의 자퇴 징후를 포착한 경우 숙려기간을 가지며 학교에서 상담을 받거나 Wee클래스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2012)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및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4조 제5항 및 제6항3)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한 법적 근거 두었다. 이후 2016년에는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16)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및 제7항4)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긴 것이다 보니 내용 상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6년 12월에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최대 93%에서 최소 56%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여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한 바 있으며, 숙려 목적 외의 제도악용이 우려되고, 숙려기간 중 학생의 소재파악 및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 3)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4)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집 때문에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만들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숙려 기간을 최소 1주 ~ 최대 7주로 설정하고, 숙려제 대상 학생의 판단기준을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 절차를 강화하였다.(교육부, 2016)

이후에도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허민숙(2021)에 따르면 2015학년도 86%의 학업 지속률을 보인 이래로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19학년도에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이후 76.6%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 전체 학급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 및 학업 지속률

(단위 : 학년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참여율	88.3	87.5	87.8	85.9	87.8	87.5
학업 지속률	86.0	79.7	78.9	75.1	76.6	79.3

출처 : 허민숙(2021)

[표 4]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 기준

구분	내용
목적	지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편차를 줄이고, 제도 악용 사례 방지 및 참여 학생 안전관리 등을 보완
대상	위기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 위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었음. 적극적으로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과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에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권장
기간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주 이상, 최대 5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숙려기간을 결정할 수 있었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위기수준에 따라 2주 미만으로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소기간을 1주 미만으로 단축
프로그램	학생의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 및 체험활동 등을 제공해야 하며, 시·도별로 최소한 필수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안전관리	외부기관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교 측의 학생 소재 파악이 미흡하므로 학교의 안전관리 신설
종료 후 학업 복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이 복교 후 반복해서 위기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복교지원 프로그램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권장
종료 후 학업 중단	학생·학부모 면담을 강화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의 중단학생 연계 강화

출처 : 윤철경 외(2019a)

제 2 절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분석

학업중단이나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구글 학술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이나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된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윤철경 외(2019a)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문헌 조사를 하는 한편,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및 참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별 숙려제 운영 방식 및 예산 집행 방법에 있어서 교육청 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고, 시도별 예산 지원 및 배분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 및 숙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외 프로그램보다는 교내 프로그램의 성과를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이해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숙려제 참여 기간은 1~2주 이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결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거나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등의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숙려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외부기관과 관련하여는 주요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담 및 치유 영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문화체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기관 담당자들은 자기 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5점 만점 중 4점 수준

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회신하였다.(윤철경 외, 2019a)

또한, 윤철경 외(2019b)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을 분석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는 숙려기간동안 학생이 학업중단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신과 학교생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 정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여 학교에 적응할 힘을 키워주고 있다는 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학교 부적응,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을 파악하여 학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성과로 도출하였다. 반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상 어려움도 도출하였는데 시·도별 세부 운영 지침이 달라서 지역에 따라 숙려제 운영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게 된 원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기 어렵다는 점, 자퇴 의사가 확고하거나 학교 부적응이 심화된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윤철경 외, 2019b)

국책연구기관 외에도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각도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안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조상식(2012)은 시범실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경기도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의 숙려기간은 15일 내외였으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자신의 결정을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운영 방식으로는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자퇴징후를 보이는 경우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뉘어 두 경우 모두 대상 학생들이 상담지원센터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였다.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학생이 접근 가능한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학업중단에 대한 각종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미국, 영국 등의 해외동향을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AGE(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 Program)가 있는데 이는 1995년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학업성취 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학급규모 축소를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다. 위 사례들을 토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업중단을 막을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점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학업중단의 기미가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교나 학교 밖의 다른 교육 트랙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어 시·도교육청과 다양한 학교 밖의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병·의원 등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조상식, 2012)

이승현·박학모·김성기(2014)는 한국의 학업중단 실태와 범·제도를 분석하는 한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학업중단 예방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연구 결과 연구진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업중단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책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모에게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필요시 지역사회 내에서 비행을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인 경찰이 학업중단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관련된 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학업중단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해주고, 대안학교 모델을 만드는 등 학생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자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의 학업복귀 대안학교로서 위탁기관인 PRU와 같은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직업진로체험 기회를 통한 학업복귀방안을 마련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학업중단 현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이승현·박학모·김성기, 2014)

이외에도 정선영·최성무(2016)은 일반계 남자고등학생들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학교생활요인을 학습활동 영역, 문제행동 영역, 대인관계 영역, 학교유대 영역 등 4개의 영역과 9개의 요소, 29개의 주요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에 이르는 지표로는 학업성취수준, 출석율, 비행,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 등을 도출하였다. 학교생활요인의 4

개 영역에서 도출된 요소들은 각기 영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학업중단숙려에 이르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충실하게 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숙려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정선영·최성무, 2016)

[표 5] 학업중단숙려에 이르게 된 학교생활요인

영역	요소	주요내용
학습활동	기초부족	· 수업시간에 무슨 소린지 기억도 나지 않음 · 집중을 못하여 옆드려 잠이나 잠 · 멍하게 앉아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학업에 대한 중압감	· 혼자 뒤처지고 따라가기 힘들 · 아는 것이 없어 공부하기 싫음 · 바닥을 깔아줌
	노력이 결여된 환상	· 어떻게든 되겠지 · 학교 나오는 시간 아까움 · 부모로부터 물려받음
문제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 반복되는 지각, 조퇴 · 잦은 결석 ·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 · 친구들과 유희
	신체화	·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 점심을 먹지 못하게 배 아프고 화장실에 자주 감 · 잠 안오고 머리도 아픔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	·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 · 공감대 없는 비난 · 지난날 왕따 당한 상황과 같게 느낌 · 날 쳐다보고 비웃는 것으로 인식
	교사와의 갈등	· 선생님에게 상처받음 · 무시당함 · 존경심이 떨어짐
학교유대	결속력, 소속감 상실	· 학교 다니는게 의미가 없음 · 학교 온다는 자체가 별로임 · 활동시 억지로 참음
	목표와 가치에 대한 회의	· 수동적 학교진학 · 진로와 학교가 맞지 않음 ·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출처 : 정선영, 최성무(2016)

김종우, 주수산나(2018)는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학교 상담현장의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상담현장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의 긍정적 / 부정적 상호작용 기제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빈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던 청소년이 학교 복귀를 결심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면 제도를 운용하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직무 만족과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되는 한편, 학생에게 숙려제 참여는 또래 집단과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아’라는 낙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소외나 무관심을 경험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학업 중단 숙려제의 주요 행위자인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는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가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였으나, 학생들을 상담사에게 연결해주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가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수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와 학교 제도 안에서 입시를 중심에 둔 평가 기준을 넘어 다양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김종우·주수산나, 2018)

[표 6] 학업중단숙려제 제도와 행위자의 주요 맥락과 상호작용 경향성

맥락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학제	초/중학교	-의무교육, 퇴학가능성 없음 -초·중학교 중심의 Wee센터 운영	-
	고등학교	-	-입시 중심교육(인문계고) -진로교육 부재와 관리 사각 지대
고용 유형	정규직	-교육부 연수, 방학 활용한 자기계발 -연계 기관 사이의 협업이 용이	-
	비정규직	-비정규직 간 강한 연대	-상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노동조건 개선 위한 단체 행동
지역	비도시	-상대적으로 적은 내담 인원 -개별 상담자에 집중 가능	-지역사회의 부족한 상담 자원 -낮은 상담 이해와 비협조
	중소도시	-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 -구조적 사각지대
	광역도시	-풍부한 상담 자원, 높은 상담 이해 -체계화된 업무 분담과 조직 운영	-인력 부족과 과로 -개별 상담자 집중이 어려움

출처 : 김종우, 주수산나(2018)

최근에 문수연(2020)은 Cooper et al.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해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 분석을 시도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 목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급히 결정하는 학업중단 예방’,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학교 적응력 증진’ 등 세 가지 하위요소를 추출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정책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추진 체계와 전담 조직, 시행 방안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경우 정책 도입 이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책 대상과의 깊은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여 의지에 비해 실효성이 아쉬웠다고 평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학교와 교원, 학생, 기관 담당자로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숙려제 담당 교사들은 업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정책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나 동료 교사와 관리자 집단의 비협조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어 교원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와 함께 지속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계획 및 실행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단계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되면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형식적 운영, 정책 수혜자와의 공감대 형성 불가, 제도적 문제, 국감에서 매년 지적되는 시·도교육청 간 복교율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문수연, 2020)

허민숙(2021)은 제도 시행(2014년) 후 전체 학급의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율은 2015~2016년 0.8%로 그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2019학년도에는 1.0%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 효과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시 가

장 주요한 정책 대상자들의 학업중단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는 다른 경로로 학업을 지속하려는 자퇴신청자 보다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교사 등에 의해 학업중단의 위기징후가 포착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여 제도 효과의 편차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위기징후 학생 발굴 노력 강화, 지역별 편차 해소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허민숙, 2021)

[표 7] 자퇴·유예·면제 신청자 중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및 지속자 수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 (A)	참여자 수 (B)	참여율 (B/A)	학업지속자 수 (C)	지속률 (C/B)
2015	9,009	4,509	50.0	1,020	22.6
2016	10,411	5,880	56.5	1,295	22.0
2017	10,911	6,929	63.5	1,527	22.0
2018	10,607	6,209	58.5	1,428	23.0
2019	9,448	5,801	61.4	1,602	27.6

출처 : 허민숙(2021)

[표 8] 위기징후 사전포착 전체 학급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현황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 (A)	참여자 수 (B)	참여율 (B/A)	학업지속자 수 (C)	지속률 (C/B)
2015	39,959	38,752	97.0	36,202	93.4
2016	33,321	32,402	97.2	29,226	90.2
2017	36,556	34,760	95.1	31,375	90.3
2018	27,805	26,793	96.4	23,349	87.2
2019	27,325	26,495	97.0	23,140	87.3

출처 : 허민숙(2021)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Rumberger(2004)는 학업중단의 이유를 크게 개인적 관점(individual perspective)과 환경적 관점(institutional perspective)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개인적 관점은 학생의 특징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특성과 학업중단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다. 환경적 관점은 학교, 가정, 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학생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둔다. Rumberger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업에 대한 실패라기보다는 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의 문제이며 또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이 그들이 직면하는 학업적 관심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김성기, 2012)

일본에서는 2010년도 문부과학성은 ‘부등교’를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 요인·배경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연간 연속 또는 단절해서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 가운데 병이나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적으로 부등교의 원인은 ① 학교생활 상의 영향 ② 유희이나 비행 ③ 무기력 ④ 불안 등 정서적 혼란 ⑤ 의도적인 거부 ⑥ 복합 등이 있다고 하였다(川端久詩編, 2010).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지메와 자살, 부등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시책으로는 “배우는 의욕을 키우고 나아가 등교하고 싶은 학교 만들기”, “마음의 교육 충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지도체제의 충실”,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상담체제의 충실”, “부등교 학생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으로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학업중단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시책이 한국의 사례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김성기, 2012)

2. 소결

그간의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도입과 안착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 쪽과 외국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돼 있었다.

제도가 도입되고 일정부분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가 되자 연구자들은 학업중단 숙려제가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해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로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초·중등교육법」에 입법되고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이에 대한 입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허민숙, 2021)도 최근에 수행되었다.

기존에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거나 실제 숙려제가 수행되는 상황을 분석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굴하는 등 학교별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굴하여 제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표 9] 학업중단 숙려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 제목(연구자)	주요내용
제도 도입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정적 정착방안 (조상식, 2012)	· 경기도 교육청 운영 사례 분석 ·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미국, 영국 등 해외 동향을 조사 ·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도출 연구 (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학업중단 예방 제도 분석 · 학업중단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 제언
제도 운영	일반계 남자고등학생들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이르는 학교생활요인 탐구 (정선영, 최성무, 2016)	· 학습활동 영역, 문제행동 영역, 대인관계 영역, 학교유대 영역 등 4개의 영역과 9개의 요소, 29개의 주요내용으로 구분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기능 강화, 숙려제 프로그램 개발
	학교상담현장에 인식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제 (김종우, 주수산나, 2018)	· 학교 상담현장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긍정적 / 부정적 상호작용 기제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빈도로 작동 ·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 연수 및 홍보의 중요성
개선점 발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연구 (윤철경 외, 2019b)	· 17개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분석 ·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과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도출하여 정책 제언 제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윤철경 외, 2019a)	· 교사, 학생, 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 시·도별 운영방식, 예산 지원 배분 방식, 출석인정 기준 등의 차이가 있음을 규명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해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 분석 (문수연, 2020)	·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 · 학업 중단 위기 요인별 대응 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
	학업중단숙려제의 입법영향과 개선과제 (허민숙, 2021)	· 제도 시행 효과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평가 · 학업중단의 위기징후가 포착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효과

제 3 장 연구방법 : 근거이론적 접근

제 1 절 질적연구 방법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학교별 성공 요인을 규명하는데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민속지학(En ethnography), 현상학적 접근법(Phenomenology), 개인생애사(Biography), 사례분석(Case study)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류된다(Strauss &Corbin, 1990).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두고 실증주의적 전통을 결합하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해석학적 패러다임(Interpretative paradigm)은 인간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행동에 담긴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윤인진, 2001). 특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의 특성상 개인이 겪는 경험 및 체험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지 상호작용 과정과 개인의 언어와 행동 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에 이론적 배경을 둔 근거이론 방법은 인간이 가지는 의미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감정 이입적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의미체계는 변화하기 때문에 과정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자의 해석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박진우, 2012).

본 연구를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학업중단 숙려제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동일한 운영지침을 가지고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제도 운영의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맥락적인 차이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 2 절 근거이론(Ground theory)과 분석과정

1. 근거이론의 개념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전통」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이론 그 자체」를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5; Strauss & Corbin, 1990; Glaser, 1998; Charmaz, 2006).

Glaser & Strauss(1965)에 의해 창안된 근거이론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이미 개발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적 틀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이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연구 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기존의 연구가 충분치 않을 때 유용하다(남궁근, 2010)

근거이론에서는 관심 가는 연구 현상 및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찾아 간다. 그 후 관련된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근거이론에서 분석을 코딩(Coding)이라고 표현한다. 이 코딩은 수집한 질적 정보들을 정밀하게 나누어 공통적 개념(Concept)을 이야기하는 것끼리 묶어 적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은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음을 만들어 새로운 범주(Category)를 만든다. 그 후 도출된 범주를 연결하고, 그 가운데에서 핵심 범주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원인, 조건, 결과의 위치에 놓으면서 하나의 이론적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론을 보다 정밀화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개념화, 범주화 작업으로 돌아가서 재수집 및 재검토 작업을 이어간다. 충분히 정밀화 되었을 때 작업을 마치고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신경림·김미영, 2003)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이론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데 그것은 자료수집과 분석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성’이다. 보통 귀납적 연구방식은 자료로부터 명제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일방향적이다. 반면, 근거이론 방법은 동시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함께 진행되면서 모습이 드러나는 이론을 고려하여 자료의 수집이 다시 이뤄지고 분석되는 순환적 과정이다(신경림·김미영,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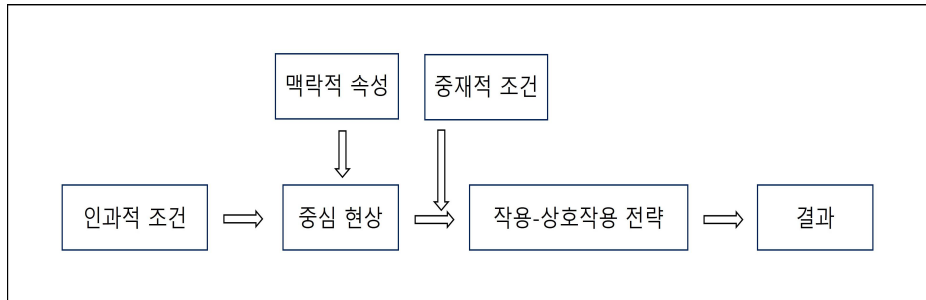
Strauss & Corbin(2001)은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단계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구성했다.(김다니, 2017) 여기서 개방코딩이란 자료를 분해하여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묶고 정보의 범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 중 다른 범주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범주를 찾아 구조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이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을 연구자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구조화한다. 선택코딩은 생성된 범주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작업이다. 축코딩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축코딩을 기반으로 이론적 명제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보다 추상화된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은 선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순환적이다. 단계별 코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기도 하며 범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김다니, 2017)

2. 근거이론의 분석틀(패러다임 모형)

Strauss & Corbin(1990)가 고안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은 연구자가 코딩의 과정에서 정보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코드들을 담을 수 있는 ‘해석의 틀’로서 모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모호성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인식주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권향원, 2016)

패러다임 모형은 (1) 중심현상(focal phenomena), (2)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3) 맥락적 속성(attributes of the context),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그리고 (6) 결과(consequences)의 ‘6가지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설명해주는 외생적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 중심현상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자료의 핵심변수이며, 아울러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 이때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맥락적 속성이다. 또한 중심현상이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전략적인 작용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구체화 시켜주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적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이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과정에 의해 나타난 최종 산출물을 의미한다.(권향원, 2016)

제 3 절 연구문제의 설정과 연구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연구문제를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로 설정하였다. 특히, Strauss & Corbin(1990)의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적 운영을 ‘중심현상’(focal phenomena)으로 두고자 한다. 다만, 성공 요인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속성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숙려기간을 얼마나 다르게 설정하는지 여부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이후 출석 인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숙려기간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주로 단기간(1~3주 내외)으로 설정하는지 가급적 7주에 가까운 긴 기간을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도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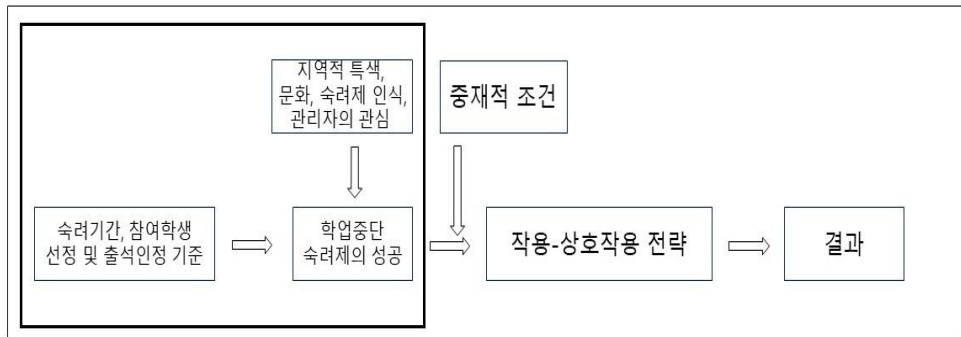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의 선정에서도 학교에 따라 명확하게 학업중단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질적으로 숙려제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어떠한 학교는 약간의 위기 징후만으로도 선제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숙려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숙려제 참여 대상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만나는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판단이 제도 운영의 성과 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출석 인정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법령 상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출석을 인정해줄 수 있는 주체는 학교장에 해당한다. 만약,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출석 인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우라면 숙려제 참여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의 학생의 참여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맥락적 속성으로는 제도 자체는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지리적 특색이나 문화, 학업중단 숙려제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성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 이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숙려제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과거 Wee센터 등에 근무하는 경험이 있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차별화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진로·직업체험기관에 인근에 다수 배치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재구성한 패러다임 모형



2. 연구 방법

다음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로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과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담당했던 교사, 장학사, 전문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후 학업에 복귀한 학생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하여 학교의 어떠한 점 때문에 학업 복귀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인터뷰 대상 선정은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이력이 있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우수사례로 꼽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0] 연구 참여자 목록

연번	성별	소속	역할	기타
1	여	A고등학교	교감	
2	여	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3	여	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4	여	B고등학교	학생(고1)	숙려제 참여 후 복귀
5	여	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6	여	D고등학교	학생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 활용
7	여	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모범사례 학교
8	여	F중학교	담임교사	
9	여	G연구기관	부연구위원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국책 연구기관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우수하다고 추천을 받은 학교이며, A,B고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내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C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주최한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교이다. E중학교의 경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2021년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사례로 제시한 바 있는 학교이다. D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나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사례 공모전(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에 당선된 수기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F중학교 담임교사는 최근 맡고 있던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였다 학업에 복귀한 바 있으며, G연구기관 부연구위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연구와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 기관 소속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운영 사례를 접한 바 있다.

본 인터뷰는 2021년 10~12월 경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학교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4월까지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3. 질문지 구성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상대로 대상별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질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질문지 구성

대상	질문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자 (교장, 교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성공적인 숙려제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해야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 숙려제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 인지? 다른 학교에 비교하여 큰 편인지? - 출석인정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숙려제 참여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에 비교하여 유연한 부분은 있는지?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상담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 학생을 선정하여 숙려기회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숙려기간을 정할텐데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지? - 숙려기간동안 학교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 편인지 학교 밖에서 많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편인지? - 복귀한 학생들의 경우 어느 쪽에서 숙려기간을 보냈을 때 만족도가 높았는지? - 학교가 위치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은 어떠한지? 학생들의 가정환경이나 숙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한 외부기관의 요건 등

<p>담임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경우 명시적인 부적응 징후(지속되는 무단결석 등)를 보이지는 않아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으면 먼저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는지? - 숙려제 참여후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과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 - 숙려제 참여후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참여 전보다 학업에 임하는 태도가 개선되었는지?
<p>참여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학업중단 숙려제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했을 때 숙려제가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지? - 숙려제를 참여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것인지? (상담, 외부 프로그램, 학교 등) - 학업중단 숙려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p>전문가 (연구기관, 교육청 근무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한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시 : 예산, 프로그램, 제도운영, 관리자의 관심, 교사의 열정 및 전문성, 지역적 특색 등)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인과적 조건 분석

1. 숙려기간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대전광역시교육청, 2021)에 따라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돼 있다.

[표 12] 숙려기간 규정

<input type="checkbox"/> 숙려 횟수: 당해 학년도의 숙려 기간(최대 49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input type="checkbox"/> 숙려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까지(주 단위로만 운영/ 주말, 공휴일, 휴업일 포함 / 지필평가 기간 제외) ※ 최소 2주를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1주 실시도 가능 ※ 시작일로부터 7일째가 되는 날까지를 '1주'로 함(목요일에 시작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1주'임)				
<숙려 횟수 및 숙려 기간 운영 예시>				
구분	1회차	2회차	숙려기간 (횟수)	비고
예시1	상담(2주)		2주(1회)	숙려 횟수 1회 남음 숙려 기간 5주 가능
예시2	상담(2주)	상담, 선택프로그램(3주)	5주(2회)	숙려 횟수 2회 모두 사용하여 숙려제 종료
예시3	상담, 선택프로그램(2주)	상담(2주)	4주(2회)	
예시4	상담, 선택프로그램(7주)		7주(1회)	숙려 기간 7주를 모두 사용하여 숙려제 종료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이에 따르면 최소 2주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1주 실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주~7주의 기간 안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전 관내에서 우수하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숙려 기간을 전반적으로 길게 설정한다든지, 짧게 설정한다든지와 같은 경향성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면, 모든 인터뷰를 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의 상황에 맞춰 숙려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하였다.

”숙려기간은 애들마다 달라요. 지금 숙려기간 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맥시멈(7주)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짧은 아이들은 위탁가는 것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기간에 맞게 정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만 두는 것이) 다 정해진 애들은 그냥 짧게 1주라도 하고 있구요.(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보통은 최소 권장(2주)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부적응이거나 학교 수업이 어려워서 아이가 쉽이나 여유를 갖고 싶은 거라면 길게 참여를 합니다. 또한 빨리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학업중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이 기간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도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하기를 희망해서 내담자 맞춤형으로 그때 그때 합니다.(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숙려기간을 정할 때 애들이 정말 학업 중단 의사가 있는지 또는 다른 요인 때문에 학교가 오기 싫은 건지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단호하게 학업 중단의 의사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딱 2주로 끝내요.(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저희는 숙려기간을 보통 2주 정도로 잡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서 필요하면 연장을 하거나 다음 학기에 다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2주 정도로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상황, 중단 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함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의 숙려기간을 설정한다. 이 때 학업중단 의사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는 가급적 짧은 기간 숙려제를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우 관계나 학업문제 등 학교 내 부적응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긴 기간동안 숙려제를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수하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숙려기간을 일관되게 길거나 짧게 설정하기 보다는 학생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맞춰서 설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예산

대전광역시 내의 학교는 학업중단 숙려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예산의 배정 기준과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3] 운영 예산 규정

<p><input type="checkbox"/> (예산 지원) 중학교 34만원, 고등학교 61만원 교부 예정(3월 중),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예산 편성 사용</p> <p><input type="checkbox"/> (협조 사항) 2022학년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으로 학교별 자체 예산 마련</p>
<p><숙려제 지원 예산 사용></p>
<p>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 체험활동비(문화·예체능 등), 활동비(멘토링 생일파티 등),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 ■ 1회성 행사보다는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1회성 행사비에 과다한 예산 지출 지양) ■ 기자재 등 비품 구입 불가(악기, 배드민턴 라켓, 놀이교구 등), 문화상품권 및 도서 구입 불가 ■ 협의회비: 총액의 20% 이내
<p>※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중단 예방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제동행 꿈키움 멘토링에 사용</p>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숙려제 예산이 설정되고 중학교는 34만원, 고등학교는 61만원, 초등학교는 별도의 추가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학교급별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별 운영 성과에 따라 학교별로 다른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뷰 결과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핵심이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실 예산 중 가용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체험활동을 할 때 상담교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학교별로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한된 예산 하에서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중학교는 34만원인데 34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실 예산을 별도로 100만원 더 잡아줘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투입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험처도 많이 없기도 해서 제가 재료 구입하고 방법을 유튜브를 찾아서 배워서 가운 열쇠고리를 만들기도 했어요..(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학생마다 수요가 다르니 인당으로 보면 한 10만원 선을 숙려제 1회마다 쓰려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무슨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Wee클래스(상담실)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또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정신건강 예산이나 생활안정 예산도 있어요.(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단위학교 단위로 내려진 예산은 중학교는 40만원 정도로 기억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 예산에 대안교실 예산을 같이 했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Wee클래스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형식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했어요.(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가급적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액에 맞춰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목적이 유사하여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진로탐색이나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숙려제만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수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출결 및 성적 처리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출결과 성적 처리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한 이후 해당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거나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출석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동법 제28조 제7항에서 "학생에 대한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출결 및 성적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4] 출결 및 성적 처리 규정

<input type="checkbox"/>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처리	
구분	출결 처리
주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해당 주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처리
주 2회 미만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나머지는 '미인정결석' 처리
<input type="checkbox"/>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학교에 복귀 가능(복귀 시 출석 처리를 위해 학교장 결재 필요)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은 지필평가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간을 지정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중복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기준을 마련	
<input type="checkbox"/> 지필평가 기간과 숙려 기간이 겹칠 경우, 지필평가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이에 따르면 총 주 5일 중에서 2회만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필평가 기간에는 가급적 숙려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결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지침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와 다르게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A고등학교 교감)“

”학교 나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러니깐 반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반에 적응을 못하는데 자퇴를 하게 되면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공부에 대한 뜻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은 Wee클래스(상담실)에서 공부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숙려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애들은 그냥 5일 다 나오게 됩니다. 출석인정 기준은 주2회 이상이지만 이런 경우는 5일을 다 나오게 하고 있어요..(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위와 같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출석인정 기준에 대하여 교육청의 지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에 대해 달리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다. 반면, 세부적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연한 출석인정 기준을 활용하여 위기학생의 부적응이 심화돼 학교에서 탈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도 운영하는 경우는 존재했다. 이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여 종국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위기 학생이 상담실에 매일 상주하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나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다. 학교 부적응의 상황이 심화될 경우 숙려제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려제가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대상을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과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은 비교적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유예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명시적으로 유예나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의 경우는 "학업중단의 징후"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5]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규정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로 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학생
- 기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 미인정결석 발생 시(연속 3일, 누적 15일) 담임교사가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이 기준에 따르면 미인정결석을 연속 7일 이상 하거나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분명하게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으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구별되게 “학업중단 예상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판별하고 있는데 이는 총 10개 문항 3개 분야(태도, 규범, 의도)로 구성돼 있으며 3개 분야별로 합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되, 분야별 평균값이 2.5 이상이 1개면 위험집단, 2개 이상이면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인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기학생에 대한 명확한 판별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첫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서는 교사나 학교에 판단여지를 주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련이 깊은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이거나 기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의 경우는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학생의 학교 생활이나 교사의 관찰 등에 의존하여 숙려제 대상학생을 판별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일정 정도 결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기학생 주변의 교사들이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빠르게 발견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본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예측이 정말 어려운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규칙이나 교육 활동을 잘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나오다가 그만 둔다는 애들은 거의 없을거예요. 그래서 결석 일수가 며칠 이상이라서 위험학생으로 진단한다. 이런건 굉장히 어렵구요. 담임 선생님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점심에 밥을 안먹는거, 친구랑 안어울려 다니는 거 등등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계속 곁돌다가 결국에는 학업 중단을 할 위기가 굉장히 커져요. (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스크리닝 검사는 전체로 돌리지는 않고 일단 사전에 선생님들께 학업 중간에 위기가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일찍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성상 다 정하고 선생님한테 통보하는 식이 많아서 조금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스크리닝 검사는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 번씩 시켜보기는 하는데 다른 심리검사 같은 것을 한 번 더 하고 상담을 진행해요. (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저는 담임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을 파악 하고 개를 상담실로 보내는 일은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 역할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넘어온 아이면 대화가 잘 되는데 정말 억지로 막 그냥 온 아이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저같은 경우는 결석을 제일 많이 보기는 했어요. 교육청 기준은 미인정 결석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정결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정결석이 많은 학생들도 중요하게 살펴봐요. (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2021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우울, 불안 및 자살 충동으로 관심군으로 분류돼 전문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셨고, 4주 동안 교내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면서 Wee클래스에서 심리 상담과 체험을 하였어요.(D고등학교 학생)”

“저희 같은 경우 기준치가 조금 바뀌어서 무단결석 연속 5일, 연간 누적일수 20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저희는 정량적 수치보다는 연초에 담임선생님들 대상으로 숙려제에 대하여 교원 연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지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런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이 발생하면 학생부를 저에게 먼저 보내주시라고, 제가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징후는 아이가 학교에 나오

기를 좀 꺼려하고, 나와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교실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 하는 경우예요.(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반 아이가 결석은 하지 않는데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어딘가 좀 힘들어 보여 상담선생님과 상의를 했고, 상담을 받게 했어요.(F중학교 담임교사)”

이상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스크리닝 검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크리닝 검사는 다른 심리검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들에서는 학교급이나 학교의 위치 등에 따라 학교별로 위기 학생을 판별하는 기준을 달리 하는 경우는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인정결석의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칫 미인정결석에만 집중하여 위기학생을 판별하려 할 경우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미인정결석을 가리지 않고 결석 자체를 중요한 판별의 준거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위기학생에 대한 접근은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학생의 교실 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수 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빠른 시기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조기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결석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 외에도 학생이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를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A고등학교 사례와 같이 출석과 과제수행 등이 충실히 이뤄지는 학생의 경우에도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징후를 활용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 내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표 16]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

◆ 다음 지시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미래가 밝아지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 있는 시간은 늘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를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친한 친구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담임선생님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친한 친구들 중에도 학교를 그만두려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닐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양질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하여 숙려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잘 선택하고, 질 관리를 하는 것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총 5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하는 학생과 상담 등을 통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표 17]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기준

<input type="checkbox"/> 단위학교 - 대상 학생별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주 2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위(Wee)센터 - (대상) 초·중(교육지원청), 고(교육청) - (프로그램) 상담+진로체험+문화체험 - (운영기간) 1기당 2주(주 5일). 1일 4시간 이상 - (장소) 위(Wee)센터 및 체험활동 장소
<input type="checkbox"/> 위탁교육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대상) 초·중·고 - (프로그램) 상담 - (운영기간) 7주 이내, 주당 2회, 1회 1시간 이상 - (장소) 센터 또는 학생 희망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꿈드림 센터(총 2곳) - (대상) 중·고 - (프로그램) 상담 및 진로체험 - (운영기간) 2주, 주당 3일, 1회 4시간 이상 - (장소) 센터 또는 학생 희망장소
<input type="checkbox"/> 민간 위탁교육기관(총 3곳) - (대상) 초·중·고 - (프로그램)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

- (운영기간) 7주 이내, 주당 3일, 1회 4시간 이상
- (장소) 센터 또는 학생 희망장소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학교 밖 기관 등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곳.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들은 총 5가지 유형의 운영기관 중 어떠한 곳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또한 학교 외 교육기관과의 거리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가급적 충분히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원하는 외부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담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A고등학교 교감)”

“이것은 내담자 맞춤형이다 보니 이 학생이 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지가 (학교에서 할지 외부 기관에서 할지) 프로그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외부 기관에 대한 선택지를 학생이랑 학부모님께 다 안내를 하는데 학교를 너무너무 오기 싫고 혹은 외부 기관이 집이랑 가까우면 이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이 시간이 더 길어요. 출결에 대한 관리도 학교랑 별 차이가 없구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학교가 휴식이 더 많기도 하니깐 그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곤 해요” (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학교가 한 7-80정도이고 외부기관에 가는 비중이 20정도 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외부 기관이랑 집이 가깝지 않은 이상 가는게 어렵고... 저는 애들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강사님을 좀 소개한다든지, 아기를 배우거나 요리를 해보고 싶다, 제빵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둔산동은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어요. 외부강사님들 접근성도 좋으시구요.(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코로나 전에는 외부도 갔어요. 그런데 작년(2020년), 올해(2021년)같은 경우에는 체험처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나왔고, 작년에는 체험처가 전무했어요. (학교 안에) 숙려제 대상 학생이 한 두명 밖에 안되니 그걸로 외부 체험처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지 않아요.(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교내 Wee클래스에서 심리상담과 체험을 했어요. 교실에 있을 때에는 학업과 교육관계 부담으로 등교하기가 어려워져 결석을 했지만 Wee클래스에 와서 내 마음 속 이야기를 하니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어서 학교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D고등학교 학생)”

먼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교내 / 교외 선호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공통적으로 학생의 상황과 학생, 학부모 상담과 희망 조사를 통해 교내, 교외 중 어디서 숙려제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숙려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리적인 요인은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들 사이에도 의미가 있었다. 대전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편이고,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면적이 넓지 않은 편이지만 학생들은 집 인근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외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또한 대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도심권인 둔산동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강사들의 접근성 차이에 기인했다.

한편,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모범사례로 꼽은 E중학교의 숙려제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무단결석 10일 이상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프로그램은 2주 과정으로 주3회 진행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상담과 같이 나를 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과 다양한 체험활동, 심리·정서적 치유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학생들까지 이후 하고 싶은 일과 미래에 대한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담아 학업중단 위기의 순간에서 고민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숙려의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대전 E중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프로그램

□ 학교 자체 프로그램(학업중단 숙려제 - 교육 놀이터)					
구분	내용				
대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무단결석 10일 이상 학생 등				
방법	- 주 3회, 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심리·상담(필수), 인성교육, 자연·문화 체험 등				
기타	- 숙려제 대상 학생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예산				
□ 프로그램 내용 예시					
○ 1주차					
시간	월 (만남)	화 (만남)	수 (자기탐색)	목 (자기탐색)	금 (배움)
13:00~13:20	출석확인 및 오리엔테이션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13:20~15:30	집단 구조화 및 라포형성	나에 대한 탐색 1 (성격검사)	나에 대한 탐색 2 (진로 및 학업검사)	예체능체험 활동 (클라이밍 등)	진로체험 활동 (유권센터 등)
15:30~16:00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 2주차					
시간	월 (배움)	화 (성장)	수 (성장)	목 (미래설계)	금 (평가)
13:00~13:20	출석확인 및 오리엔테이션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출석확인 및 일정안내	희망가꾸기
13:20~15:30	문화체험 활동 (영화 뮤지컬)	학교갈등통찰 (미술치료1) - 외부강사	학교갈등해결 (미술치료2) - 외부강사	학업중단/자취 이후학교생활 일 탐색	소감문 작성 및 만족도조사
				나의 미래 설계	종결 상담 느낌 나누기 및 마무리
15:30~16:00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느낌나누기 및 마무리

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2021)

6.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업복귀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학업에 복귀하는 것이다. 숙려제의 결과나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떠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는 이제 자퇴를 해도 또 연락을 하거든요. 자퇴를 한 친구들도 이제 개가 이제 학교 놀러오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계속 연락하면 좀 체크도 하고 하는데 또 숙려제가 개네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약간의 준비 과정 그런 게 좀 되지 않았을까.(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한 학생은 2주 정도 학교에서 숙려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Wee센터로 나갔었어요. 그 후에는 그 아이가 대안학교까지 가고 싶어해서 대안학교로 진학했어요 다른 경우는 숙려제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해서 대안교실에 참여하거나 외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학생이 학업에 복귀했는지 학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상담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과 접촉하여 현재 상황과 현 상황에서 필요한 활동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학업중단 숙려제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그간의 상담, 체험활동과는 다른 일반 교과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다시 혼란에 빠지거나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추수지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에 적응하는데 완충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2 절 맥락적 속성 분석

1. 관리자의 지지와 관심

학업중단 숙려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 내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관련 법령 상에서 학교의 장을 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의 출석 인정 역시 학교장의 권한으로 두고 있다.⁶⁾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의 특성 상 학생이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로직업체험과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담당 교원의 복무처리, 학생의 출결 관리 등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도 숙려제 참여 가능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서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저희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상담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믿고 지원해 드리구요.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60만원 정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실 운영비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요.” (A고등학교 교감)

“출석 인정의 경우는 교육청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별도로 유연하게 운영할 여지는 없어요.” (A고등학교 교감)

6)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 :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잘 운영되려면 이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와 선생님의 열정과 같은 것들이 맞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아요.(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교장·교감선생님이 믿어주시고 융통성있게 지원해주셨어요. 사실 한 두명 데리고 체험 나가는 것 별로 안좋아하시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체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많이 지지해주셨죠.” (C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저희는 교장·교감선생님께서 필요성을 같이 인식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어요. 제가 뭔가를 할 때 제재를 하거나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가하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응원해주시고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변화요인이 있었을 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E중학교 전문상담교사)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학업중단 학생은 52,261명(초등학교 18,366명 / 중학교 10,001명 / 고등학교 23,894명)이며, 초·중·고 학교수는 11,657개교(초등학교 6,087교 / 중학교 3,214교 / 고등학교 2,356교)이다(교육통계서비스). 산술적으로 연간 한 학교당 4.5명에 수준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질병이나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면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의 관리자가 높은 관심을 갖기에는 발생 빈도수가 적은 편이다.

이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성공 요인의 하나로 꼽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숙려제 제도에 직접 참여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차원보다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예산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담당 상담교사를 신뢰하고 필요한 외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출장과 같은 복무도 처리해주는 등 소극적 차원의 지원가 지지가 주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주로 운영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제도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2. 교사의 자질

학업중단 숙려제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상황이나 필요, 희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숙려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의 성패는 학생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관심을 갖고 학생을 지켜보며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필요와 희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성의 경우에는 현재 대전 내 대부분의 학교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 배치돼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표 12]와 같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수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표 19]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교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출처 : 「초·중등교육법」 별표2

대부분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같은 기본적인 교직소양을 갖추고 교원으로 임용되지만 특별히 더 학생을 세밀하게 살피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외에 학생들과 가장 많이 마주하는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찰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교사와 연결을 해주거나 학업중단 숙려제를 소개해주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 그만 둘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좀 안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랑 개인 면담을 하시다가 위기가 포착했을 때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들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세요.”(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애를 상담실로 보내는 일은 담임선생님께서 중간에서 해주셔야 하니까요. 거기서 잘 넘어온 아이면 대화가 잘 되는데 억지로 온 아이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교실에서 막 호흡이 조금 가빠지고 속이 갑자기 안좋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짧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조금씩 길어졌구요.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담임선생님과 상담선생님께서 숙려제라는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숙려제를 할 때 매일 학교에는 나왔는데 교실에 가지는 않고 상담실에서 좀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거든요. 이 기간을 통해서 회복을 했고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안심이 됐었어요.”(B고등학교 학생)

“만약 4월에 상담 선생님께서 상담과 학업중단 숙려제를 제안하셨을 때 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일지, 변하지 않는 상황을 타하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미래를 더 이상 그려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D고등학교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된 사례들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례에 결국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G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와 같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학생을 관찰하여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전문가인 상담교사에게 연계를 하여 상담이나 학업중단 숙려제와 같은 것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B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교과 공부 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 시간도 갖게 되었고, 원래 이공계 진로를 모색하던 학생이 그림에 흥미와 재능이 있음을 느끼고 본인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4주간 참여한 학업중단 숙려제가 종료되고 원래 교실로 돌아갔는데 그간 나타났던 심리적인 문제도 해소됐고 건강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자칫 학업중단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초기 단계에서 문제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 지역적 특색 및 문화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라는 지역에 한정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내에도 지역별로 인프라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제도 운영의 효과에서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매년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내 입상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0]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기준

연도	학교명	학교급	공/사립	소재지
2021	괴정중학교	중	공립	서구
	문성초등학교	초	공립	중구
2020	국제통상고등학교	고	공립	중구
	갈마초등학교	초	공립	서구
2019	동대전초등학교	초	공립	동구
2017	이문고등학교	고	사립	대덕구

위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입상한 학교들의 현황을 살펴볼 때 총 6개 학교가 입상을 하였으며 학교급은 초·중·고로 다양하고, 지역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등으로 분포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우수 사례로 인터뷰를 진행한 학교들도 서구, 대덕구, 유성구 등에 분포하고 있었다. 결국 적은 수의 표본이지만 소재지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소재지가 제도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지역의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숙려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사례는 있었다.

“여기는 연구단지 주변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세요. 애들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 수준도 높은 편이구요. 학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담임선생님께 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A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저는 애들이 좀 원하는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강사님을 좀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를 하고 싶다, 제빵을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 둔산동의 이점은 그런게 많다는 것이었어요. 외부 강사님들 접근성도 좋으시구요.”(B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위 사례와 같이 교육 인프라가 좋고,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경우라면 그 자체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성공을 담보해주지는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제 3 절 결과 분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코딩하면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결과 분석

인터뷰	개념	범주	영역	조건	중심현상
"숙려기간은 애들마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름				학업중단속려제의 성공적 운영
"학업중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기간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도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하기를 희망해서 내담자 맞춤형으로 그때 그때 합니다"	학생 상황에 맞게	학생 맞춤	숙려기간	인과적 조건	
"숙려기간을 정할 때 애들이 정말 학업 중단 의사가 있는지 또는 다른 요인 때문에 학교가 오기 싫은 건지 이게 중요해요"	학생 의사에 따라	학생 의향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중학교는 34만원인데 34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동일한 금액	한정된 자원	예산		
	충분하지 않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Wee클래스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형식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했어요."	융통성 있는 집행	유연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실 예산을 별도로 100만원 더 잡아줘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투입해요."	유연한 활용				
"출결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지침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고"	동일한 기준	기준	출결 및 성적 처리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애들은 그냥 5일 다 나오게 됩니다. 출석인정 기준은 주2회 이상이지만 이런 경우는 5일을 다 나오게 하고 있어요."	학생 상황에 맞게	학생 맞춤			
"반 아이가 결석은 하지 않는데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어딘가 좀 힘들어 보여 상담선생님과 상의를 했고, 상담을 받게 했어요"	관찰을 통한 발견	관찰	참여 학생		
"점심에 밥을 안먹는거, 친구랑 안어울려 다니는 거 등등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위험징후 조기 발견				

계속 곁들다가 결국에는 학업 중단을 할 위기가 굉장히 커져요.”					
“2021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우울, 불안 및 자살 충동으로 관심군으로 분류돼 전문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서행동 검사를 통한 발견	전문적 검사			
“학교가 한 7-80정도이고 외부기관에 가는 비중이 20정도 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 선호	선호 반영	운영 기관		
“내담자 맞춤형이다 보니 이 학생이 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지가 프로그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내담자 맞춤형				
“저는 이제 자퇴를 해도 또 연락을 하거든요 자퇴를 한 친구들도 이제 개가 이제 학교 놀러오기도 하기도 하고”	지속적 연락	지속적 관심	학업 복귀		
“숙려제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해서 대안교실에 참여하거나 외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추수활동				
“저희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상담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믿고 지원해 드리구요”	지지해줌	신뢰	관리자의 역할		
	믿어줌				
저희는 교장·교감선생님께서 필요성을 같이 인식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어요.	충분한 지원	지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	전문자격증 소지	전문성			
“학생이 학교 그만 둘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좀 안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랑 개인 면담을 하시다가 위기가 포착했을 때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학생에 대한 애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	교사의 자질		
	관찰				
“다른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례에 결국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담임교사의 열정				
“여기 둔산동의 이점은 그런게 많다는 것이었어요. 외부 강사님들 접근성도 좋으시구요.”	타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지역적 특색 및 문화		
“연구단지 주변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세요. 애들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 수준도 높은 편이구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맥락적 속성

학업중단 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을 두고 있어서 관내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 영역 중 숙려기간에서는 “학생 맞춤”이나 “학생 의향”과 같은 공통의 범주를 찾을 수 있었고, 예산에서는 우수한 학교에서도 한정된 재원이라는 공통의 제약 조건은 가지고 있었으나 “유연한 집행”이라는 공통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출결 및 성적처리에서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먼저 범주화가 됐으나 이 부분에서도 “학생 맞춤”의 범주가 나타났다. 참여학생의 경우 “관찰”과 “전문적 검사”라는 범주를 구성하였고, 운영기관 항목의 경우 범주화 했을 때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선호반영”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업복귀 영역에서는 “지속적 관심”으로 범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해볼 때 인과적 조건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매뉴얼이라는 동일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속성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 영역은 “신뢰”와 “지원”으로 범주화 될 수 있었으며, 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는 “전문성”, “학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조화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특색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적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은 적은 편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대상인 교장·교감,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생들에게 대상에 특성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한 면담자들은 대부분 첫 번째 요인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열정을 꼽았다.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숙려제 프로그램 중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상담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위기학생 발굴에 참여하고, 관리자들이 지지해준 덕분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상담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을 만나는 경우가 한정되다보니 담임교사가 관찰을 통해 위기 징후로 발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기는 어렵다. 또한, 만약 학생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교장·교감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소극적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숙려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공통 요인은 모든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자발적 노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학업중단 숙려제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제도화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된지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결과 2011년 7만명 이상이던 학업중단 학생은 최근 5만명 내외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대체로 제도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특별히 학업중단 숙려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의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의 성공요인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과적 조건에서는 예산과 운영 매뉴얼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학생에 대한 관찰과 관심에 기반하여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숙려제를 마친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수지도 를 하는 것이 성공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맥락적 속성에서는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을 신뢰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함께 담임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열정으로 학생을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할 때 성공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었다.

제 2 절 정책 제언

학업중단 숙려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공통 성공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운영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여도 매뉴얼이나 지침이 단정적으로 서술돼 있는 경우 교사는 지침에 반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 상위 법률이나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석인정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장에게 숙려제 참여 기간에 대한 출석인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석인정과 관련된 분야에는 학교장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양화 하는 등 조금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운영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동일한 예산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경우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져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도를 잘 운영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잘한 학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전년 대비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거나, 숙려제 참여 후 복귀율이 개선된 학교와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학교들의 학업중단 예방 의지와 학업중단 숙려제를 보다 내실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높일 유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지속적인 연수의 필요성이다.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연수는 중앙교육연수원이나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시간 일회성 연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

문성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가급적 자주 연수를 진행한다면 담임교사들이 위기학생을 관찰을 통해 조기발견하고 전문상담교사에게 연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에 대하여 교장·교감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면 연수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결국 학업중단 숙려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상담교사나 담임교사의 관심과 열정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내재적·외재적 보상체계를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내재적 보상은 역시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이다. 학업중단 숙려제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1년에 5건 내외로 발생하여 학교 구성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의 무관심이나 불신은 담당 교사의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리자는 신뢰와 지지를 통해 내재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해야 한다.

외재적 보상으로는 포상제도 활용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유공자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경우 해당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시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 외재적 요인이지만 교사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대전지역의 학업중단 숙려제 우수 운영학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충분한 고민없이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기간이 단순히 학업중단 여부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돼 왔다. 그 결과 이 제도의 효과성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어 특별히 더 잘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틀로는 Strauss & Corbin(1990)의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적 운영을 ‘중심현상’(focal phenomena)으로 두고 인터뷰를 통해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속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분석했던 표본의 부족이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의 경우 본인의 사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 면담 대상을 여러 명 찾기는 어려웠으며, 교육청이나 Wee센터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맡아 운영하는 담당자의 경우 교육청이나 기관을 대표하여 인터뷰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여러 차례 면담 진행을 고사하였다. 충분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분석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교들이 성공적인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학교인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입상을 하거나,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고 추천해 준 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숙려제 복귀율을 기준으로 성공 사례를 선정해야 하거나 혹은 전년 대비 학업중단 숙려제 복귀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학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나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제 복귀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 자료이며,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사이트에도 공개돼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건수는 연간 평균 5건 정도로 학교별 복귀율이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며, 총 건수가 워낙 작다보니 그 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복귀학생이 1~2명 늘어날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복귀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 연구는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 학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17개 시·도에서 각기 특성에 맞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을 확대·발전시켜 전국 단위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017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작품집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2019년 제6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작품집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0년 제7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작품집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2021년 제8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작품집
-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다니. (2017).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경험과 인식: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성기. (2012). 한국과 미국의 학업중단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141-160.
- 김종우·주수산나. (2018). 학교상담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제. 상담학연구, 19(2), 107-124.
- 남궁근. (2010). 행정조사방법론 (제4판. ed.). 파주: 法文社, 2010.
- 문수연. (2020).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경림·김미영.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 현문사, 2003.
- 심현·이병환·서동기. (2015).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고등학생 학교 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1(2), 57-78.
- 박진우. (2012). 공무원 노조활동의 지속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행정논집, 24(1), 131-160.
- 윤인진.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학지사.
- 윤철경·박지영·서보람·이지혜·양수빈. (2019a).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오해섭·김소영·임하린·윤혜지. (2019b).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승현·박학모·김성기. (2014).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도출연구. 교육부.
- 이혜영·이정화·김미숙·장가람·김재경. (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정선영·최성무. (2016).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의 학업중단숙려에 이르는 학교생활요인 탐구. 학교사회복지, 35, 21-51.
- 조상식. (2012).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정적인 정착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허민숙. (2021). 학업중단숙려제의 입법영향과 개선과제, 교육문화연구, 27(1), 5~21.

2. 해외 문헌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laser, B. G., & Strauss, A. L. (1965). Awareness of Dy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Rumberger, R. W. (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In Orfield, G. (Ed.), Dropouts in America: Confronting the Graduation Rate Crisis,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2004.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t Grounded Theory(2nd ed.). C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L. & Corbin, J. (2001). (질적연구)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川端久詩編、『エンカウンターで不登校対応が変わる』、図書文化、2010.

3. 기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2012).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
업중단 숙려제」 도입. 보도자료

교육부. (2016). 위기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
기준 마련.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인숙, (2020),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성과 1위. 보도자료
김영석. 경기도내 고교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세계일보. 2011년 5월 1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정·개정문. 2016년 12월 20일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uccessful Case of The Careful Deliberation Before School Dropout : With schools in Daejeon as the center

Chung Minjoo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ccessful cases of the careful deliberation before school dropout conducted by 17 metropolitan offices of education. And then excellent cases spread other metropolitan offices and schools.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chools in Daejeon. The interview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counseling teachers, principals, homeroom teachers, and stu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he case of schools that excellently operate the careful deliberation before school dropout. Among the causal conditions areas, common categories such as "student customization" and "student intention" could be found during the deliberation period, and common categories such as "flexible execution" could be extracted from the budget. And there is a manual in attendance and grade processing, it was first categorized as a "standard," but in this part, the category of "customized students" appeared. In the case of participating students, the categories of "observation" and "professional inspection" were constructed, and in the case of operating institution items, the commonly derived words were "preferred reflection." In the end, despite the same criteria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d manuals

under causal conditions, providing customized programs by accurately diagnosing and grasping students' current situations, and showing observation and continuous interest were common factors.

In the contextual attributes area, it was important for the principal to pay attention to the oper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before school dropout and trust teachers. In addition, counseling teachers with professional certificates related to counseling, was achieved successful operation when school members such as homeroom teachers supported students in various ways with warm eyes and passion for students.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terviews with a small number of interviewees,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In addition,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on the selection of excellent schools. However, through research,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schools that operate excellent school were continuous interest in students, multi-faceted efforts of school members, and teacher enthusiasm, so efforts need to be made to support students in school dropout.

Keywords : careful deliberation before school dropout, counseling teachers, school dropout, daejeon, teacher enthusiasm, student customization

Student Number : 2015-24332